

# 무주공산... 입지자 15명 난립 벌써 과열 양상

## 광주 남구청장

광주 남구청장 선거는 현직인 최영호 구청장이 3선 도전이 아닌 시장 출마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 신인부터 지역에서 정치경력을 쌓은 전·현직 지방의원 등 15명의 입지자들이 난립해 향후 선거전이 가장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민주당 내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 경선을 준비중인 입후보자는 11명에 달한다. 김병내(43·이하 가나다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비롯한 김용집(54) 광주시의원, 성현출(54) 남구문화원장, 임형진(58)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성철(50)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수(58)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 등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를 준비중이다.

김병내 행정관은 강은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청 민원실장 등을 지내 의정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았



김병내 행정관



김용집 시의원



성현출 문화원장



임형진 전 이사장



정재수 본부장



조성철 전문위원

### 현 구청장 시장 출마로 프리미엄 없어 민주당 경선 준비 입후보자 11명 경쟁 민평당·바른미래당에서도 후보 거론

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용집 의원은 다음달 15일경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최근 지역구를 돌며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입지를 넓히고 있다. 교육문화예술포 개최, 경로당 기능강화, 향약문화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

구의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성 원장은 에너지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근린 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내걸고 바닥민심을 다지고 있다.

시의원 출신인 임 전 이사장은 지방분권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 지역 특성에 맞는 민생·복지·교육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표명을 다지고 있다.

조성철 전문위원은 최근 전남대병원을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인 영산강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단지 안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영산강유역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일자리 전담부서 신설, 남구정년제단 설립 및 청년 수당 지원, 남구시민정책회의 상설 운영 등의 공약을 걸고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창용(53)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 권용일(51) 전 남구의회 의장, 김점기(59) 전 남구의회 의장, 이철원(59) 변호사, 최진(58) 전 민주당 광주동남갑 지역위원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정심(61)·박춘수(57) 광주시의원과 김만근(60) 세무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신성진 옛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계보정치’ 특성 강해 정치세력 다툼 치열

#### 최 구청장 지지후보 관심

#### 장병완 의원 조직력 변수

남구는 그동안 비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구청장에 당선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통적으로 역대 국회의원의 조직이 탄탄한 지역이다보니 이들의 정치세력화가 뚜렷한 선거구다.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계보 정치’ 특성이 강한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황일봉 전 구청장과 최영호 구청장 등이 지방의원을 거쳐 정치 기반이 강한 남구에서 구청장에 입성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정치 세력간 다툼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책 선거 보다는 정치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대부분은 사실상 강은태 전 광주시장의 옛 조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강 시장이 정치권을 떠난 뒤 세력을 결집한 최영호 구청장의 조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조직 간 싸움에서 승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최 구청장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도 경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들에 따라 여론조사 비율이 결정되겠지만, 권리당원의 표심은 당내 경선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 맞서는 민주평화당의 경우 3선인 장병완 국회의원의 탄탄한 조직력이 큰 변수로 꼽힌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책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선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지방의원·관료출신 도전장... 민주-민평당 접전 예고

## 광주 북구청장

송광운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물러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선거도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 2명이 포진한 민주평화당도 진급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찬(52)·문상필(50)·조오섭(48) 광주시의원들과 김상훈(51) 북구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들이 대거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유일한 관료출신인 문인(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김동찬 의원은 북구의회 의장을 거치며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과 탄탄한 조직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영어 등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 해외교류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재선의 문상필 의원은 교육·행정·환경 복지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치단체 민생 탐방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꾸준히 바닥민심을 다져온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자치구 재원확보, 학교용지 부담금 등 각종 현안 해결 등의 강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김동찬 시의원



김상훈 의장



문상필 시의원



문인 전 부시장



이은방 시의원



조오섭 시의원

### 김동찬·문상필·조오섭·김상훈·문인 출사표 이은방-진선기 민평당 후보 당내 경선 준비 광주역 활성화·도심 재생사업 주요 현안

조오섭 의원은 재선 기간동안 모든 상임 위를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구와 인접한 담양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 주권의 북구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상훈 의장도 최근 지역을 돌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역~송정역 폐쇄를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전문 특화 거리 확대로 지역경제 창출, 육아종합지

원센터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문인 부시장은 광주 북구 부구청장과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 소장을 지내는 등 지방과 중앙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기반 삼아 바닥 민심을 높고 있다. 중앙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를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 경제총괄상황실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밀착형 지원, 광주역 인근 스마트시티 건설, 전국 도시재생 1

번지, 복지재생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세부 공약 점검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은방(54) 광주시의회 의장과 진선기(52)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도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선의 북구의원과 재선의 시의원을 거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조직이 튼튼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북구를 청소년·여성 진화도시, 생활체육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북안과 영산강과 무등산을 끼고 있는 북구를 청정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 전 의원은 북구새희망 포럼 이사장을 맡아 활동중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을 지낸 하희섭 전 국민의당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 관료출신 구청장 내리 3선 ... 이번 선택은?

북구청장 선거의 주요 관심사는 3선의 송광운 구청장에 이어 관료 출신이 또 다시 청장 자리에 오르느냐다. 북구청은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인인 김태웅·김재균 전 구청장 등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했었다.

하지만,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관료 출신인 송광운 정장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정치인 출신 출마예정자 대부분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전부터 “관료 출신 구청장의 3선으로 북구 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현재 관료 출신 출마예정자는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한 사람뿐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부시장은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강조하며 북구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로서 ‘관료 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교 동문인 재선의 문상필 시의원들과 조오섭 시의원 간 경선전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 모두 대학 운동권 출신에 재선 시의원으로서, 선거구 역시 똑같은 북구갑이어서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북구 지역 주요현안으로는 광주역 이전 문제와 옛 도심 재생사업 등이 꼽힌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요 쟁점 공약 중 하나다.

민평당 후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모두 민평당 소속인 만큼 양 지역 조직이 비교적 탄탄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김경진(북구갑)·최경환(북구을) 국회의원과 자신들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자치단체장 배출을 해내지 못할 경우 향후 지역구 관리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 미스트 크리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 6-사이클론콜렉터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